

## Verdict

시장은 실질금리(DGS10 - T10YIE = 4.42% - 2.31% = 2.11%)가 2.10% 임계치 상단을 유지하는 한 금의 보유 기회 비용이 구조적으로 높아 \$4,300~\$4,600 레인지에서의 하방 압력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음. 달러 강세(DXY 100.28, 1개월 +1.93%)와 US10Y 4.44%의 동시 상승이 금에 이중 역풍으로 작용하며, VIX 30.48의 극단적 공포에도 안전자산 수요가 실질금리 부담을 압도하지 못하는 구조가 시장 참여자들의 숏 포지셔닝을 정당화하고 있음. 다만 WTI \$101.11(1개월 +41.95%)의 급등과 주요국 중앙은행 매집세가 하단 지지선으로 기능하여 금락보다는 레인지 조정 국면이라는 인식임.

이는 맞는 판단인데, 결정적 증거는 실질금리가 직전 판정(2026-03-29)과 동일한 2.11%(DGS10 4.42% - T10YIE 2.31%)로 2.10% 임계치 상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직전 무효화 조건인 '실질금리 2주 내 1.95% 이하로 하락하여 3거래일 연속 유지'는 충족되지 않았으며, 실질금리에 변동 자체가 없음. 금의 1개월 수익률 -13.28%(drawdown -13.28%)는 금락 수준의 조정이나, 은의 더 심한 하락(-19.22%, drawdown -19.95%)과 비교하면 금/은 비율이 확대(약 64.4)되고 있어 유동성 위기형 강제 청산 요소가 혼합된 정황이 보임. 그러나 이는 가설 A의 '합리적 재가격 결정'을 부정하기보다, 실질금리 주도의 하방 압력 속에서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가속화된 결과로 해석됨. 가설 B의 핵심인 스테그플레이션 경로(WTI \$101.11)는 유가 측면에서 현실화 조짐을 보이나, T10YIE가 2.31%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유가 급등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아 실질금리 하락 반전의 메커니즘이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음. 구리의 3개월 -6.44% 하락은 경기 둔화 신호이나, 이것이 연준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함.

**Action:** 금(GOLD) 기존 숏 포지션을 유지하되, WTI 41.95% 급등과 구리 -6.44% 하락의 스테그플레이션 조합 및 은의 과도한 drawdown(-19.95%)을 감안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Invalidation:** T10YIE(10년 기대인플레이션)가 2주 내 2.50% 이상으로 상승하여 실질금리(DGS10 - T10YIE)가 1.95% 이하로 하락, 3거래일 연속 유지되는 경우

**Risk Factors:** 매크로: WTI \$101.11(1개월 +41.95%)의 유가 급등이 기대인플레이션(T10YIE)을 지연 반영하여 2.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경우, 실질금리가 금락 반전하며 가설 B의 스테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위험, 기술적/포지셔닝: 금 연산 변동성 37.68%, 은 57.22%의 극단적 변동성 환경에서 숏 포지션의 숏커버링 랠리 리스크가 존재하며, 금/은 비율 확대(~64.4)는 과매도 반전의 선행 신호일 수 있음, 이벤트: 중동 지정학적 위기 확산 시 원유 공급 차질이 WTI를 \$110+ 수준으로 추가 상승시키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후퇴하고 안전자산 수요가 실질금리 부담을 압도하는 국면 전환 가능

## Macro Picture

**Regime:** safe\_haven

**Key Themes:** Geopolitical Risk vs Monetary Tightening, Central Bank Diversification (CB Gold Bid), High Opportunity Cost (US10Y 4.44%)

**Dominant Narrative:** 금 가격은 5,000달러 돌파 이후 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달러 강세(DXY 100.27) 영향으로 4,594.0달러 수준까지 조정받고 있음.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불구하고 미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와 국채 금리(US10Y 4.44%) 상승이 안전자산 수요를 상쇄하며 시장에 '충격과 혼돈'을 주고 있음. 다만 JP모건의 연말 6,300달러 전망처럼 주요국 중앙은행의 매집세와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는 여전히 유효한 하단 지지선으로 작용 중임.

**Reality:** VIX 지수가 30.48로 치솟으며 극심한 시장 불안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질 금리 부담이 금의 단기 하방 압력을 주도하고 있음. 4,800달러대에서 4,594.0달러로의 하락은 고금리 환경에 따른 약 4.3% 수준의 기술적 조정이며, 한 달간 최대 17% 금락했다는 보도는 5,500달러 상단 대비 변동성이 극대화되었음을 시사함. WTI 100.91달러 돌파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T10Y2Y(0.56) 스프레드의 정상화 과정은 향후 스테그플레이션 위험에 따른 금의 전략적 가치를 재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음.

## Hypotheses

**Key Question:** 실질금리(DGS10 - T10YIE)가 이전 무효화 조건인 1.95% 이하로 하락 반전하는 조짐을 보이는가, 아니면 2.10% 상단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금의 하방 압력을 지속시키는가?

## Tensions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와 국채 금리 상승이 안전자산 수요를 압도하며 가격 조정을 유발함.

0.80

Narrative: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해야 함.

Reality: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44%까지 상승하며 보유 기회비용이 커지자 금 가격은 \$4,800대에서 \$4,594.0로 약 4.3% 수준의 기술적

GOLD US10Y VIX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집세와 장기 강세론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와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단기 투심을 위축시킴.

0.60

Narrative: 주요국 중앙은행의 탈달러화 수요와 JP모건의 연말 \$6,300 전망 등 강력한 하단 지지가 존재함.

Reality: 달러 인덱스(DXY)가 100.27을 기록하는 강세 환경 속에서 고점(\$5,500) 대비 약 16.5% 수준의 변동성을 동반한 급락세가 나타나며

GOLD DXY USDKRW

유가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금의 헤지 가치를 부각시켜야 하나, 실질 금리 부담이 단기 가격 흐름을 주도함.

0.70

Narrative: WTI \$100.91 돌파 등 인플레이션 압력은 실물 자산인 금의 전략적 가치를 재부각시키는 요인임.

Reality: VIX 지수가 30.48로 치솟는 공포 장세에서도 실질 금리 상승 부담이 금 가격을 \$5,000 아래로 끌어내리는 등 자산 간 상관관계가 왜곡됨

GOLD WTI VIX

## Alternatives

### UUP - Invesco DB US Dollar Index Bullish Fund

실질금리가 2.11%로 임계치를 상회함에 따라 달러의 수익 매력력이 부각되어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함.

### USO - United States Oil Fund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WTI \$101 돌파 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실물 자산으로서의 헤지 가치가 상승함.

### GLL - ProShares UltraShort Gold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와 높은 실질금리가 금 가격에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청산 가속화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Eval Scores

PASS

Overall 4.75

Tension 5

Hypothesis 5

Evidence 4

Verdict Logic 5

**Feedback:** 내러티브-실재 괴리를 실질금리(Real Rate)라는 계량적 지표로 매우 날카롭게 포착함. 실질금리 임계치(2.10%)와 무효화 조건(1.95%)을 명확히 설정하여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함. 다만, 긴장 분석에서 언급된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집세'를 강력한 하단 지지 요인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리스트에 이를 검증할 구체적 수급 데이터(IMF 금 보유고 변화, 중앙은행 RAG 리포트 등)가 누락됨. 가설 B의 하방 방어 메커니즘을 보다 정밀하게 테스트하기 위해 수급 측면의 데이터를 쇼핑리스트에 보강할 것을 권고함.

시장의 뷰: 시장은 실질금리(DGS10 - T10YIE = 4.42% - 2.31% = 2.11%)가 2.10% 임계치 상단을 유지하는 한 금의 보유 기회비용이 구조적으로 높아 \$4,300~\$4,600 레인지에서의 하방 압력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음. 달러 강세(DXY 100.28, 1개월 +1.93%)와 US10Y 4.44%의 동시 상승이 금에 이중 역풍으로 작용하며, VIX 30.48의 극단적 공포에도 안전자산 수요가 실질금리 부담을 압도하지 못하는 구조가 시장 참여자들의 숏 포지셔닝을 정당화하고 있음. 다만 WTI \$101.11(1개월 +41.95%)의 급등과 주요국 중앙은행 매집세가 하단 지지선으로 기능하여 금락보다는 레인지 조정 국면이라는 인식임.

**결론: 금의 현재 조정(\$4,594)은 실질금리 2.11% 돌파에 따른 합리적 재가격 결정이며, 고금리-강달러 환경이 지속되는 한 \$4,300~\$4,600 레인지에서의 하방 압력이 유효함. 지정학적 프리미엄과 중앙은행 매집세는 금락을 방어하는 하단 지지선 역할에 그치며, 실질금리가 2.10% 상단을 유지하는 동안 \$5,000 회복은 제한적임. [MEDIUM]**

이는 맞는 판단인데, 결정적 증거는 실질금리가 직전 판정(2026-03-29)과 동일한 2.11%(DGS10 4.42% - T10YIE 2.31%)로 2.10% 임계치 상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직전 무효화 조건인 '실질금리 2주 내 1.95% 이하로 하락하여 3거래일 연속 유지'는 충족되지 않았으며, 실질금리에 변동 자체가 없음. 금의 1개월 수익률 -13.28%(drawdown -13.28%)는 금락 수준의 조정이나, 은의 더 심한 하락(-19.22%, drawdown -19.95%)과 비교하면 금/은 비율이 확대(약 64.4)되고 있어 유동성 위기형 강제 청산 요소가 혼합된 정황이 보임. 그러나 이는 가설 A의 '합리적 재가격 결정'을 부정하기보다, 실질금리 주도의 하방 압력 속에서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가속화된 결과로 해석됨. 가설 B의 핵심인 스테그플레이션 경로(WTI \$101.11)는 유가 측면에서 현실화 조짐을 보이나, T10YIE가 2.31%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유가 급등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아 실질금리 하락 반전의 메커니즘이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음. 구리의 3개월 -6.44% 하락은 경기 둔화 신호이나, 이것이 연준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함.

→ 금(GOLD) 기준 숏 포지션을 유지하되, WTI 41.95% 급등과 구리 -6.44% 하락의 스테그플레이션 조합 및 은의 과도한 drawdown(-19.95%)을 감안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무효화: T10YIE(10년 기대인플레이션)가 2주 내 2.50% 이상으로 상승하여 실질금리(DGS10 - T10YIE)가 1.95% 이하로 하락, 3거래일 연속 유지되는 경우

대안 UUP: 실질금리가 2.11%로 임계치를 상회함에 따라 달러의 수익 매력에 부각되 | USO: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WTI \$101 돌파 등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 | GLL: 연준의 매립적 스탠스와 높은 실질금리가 금 가격을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

